

’95道政主要業務報告

忠清北道

報 告 順 序

I. 一 般 現 況

II. 道 政 方 針

III. '95道政主要施策 推進狀況

I. 一般現況

基本現況

□ 면적 : 7,439km² (전국의 7.5%)

○ 임야 69%, 농경지 20%, 기타 11%

□ 인구 : 416천가구, 1,425천명 (전국의 3.1%)

○ 도시 955천명 (67%), 농촌 470천명 (33%)

□ 행정구역 : 3시 8군 163읍면동

□ 공무원 : 12,423명 (도 2,623, 시군 9,800)

□ 재정규모 — 19,088억원 (전년 최종예산 대비 0.6% 감)

○ 도 : 6,709 " (35.2%)

○ 시군 : 12,379 " (64.8%)

※ 자립도 : 41.1% (도 43.6%, 시 50.2%, 군 23.3%)

□ 도 예산규모 — 6,709억원 (전년 최종예산 대비 9.9%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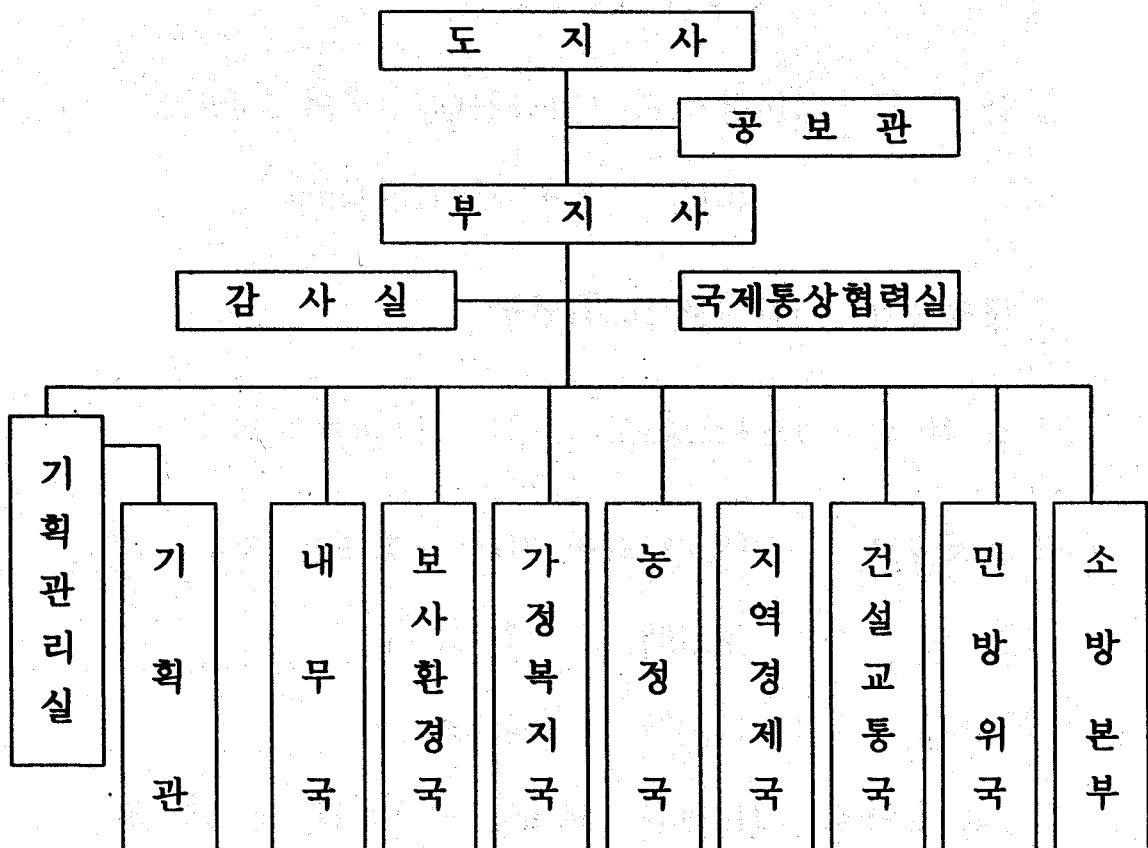
○ 일반회계 : 5,403억원 (자체 2,246, 의존 3,157)

○ 특별회계 : 1,306 " (공기업 1,090, 기타 216)

機構 및 定員

□ 機構

- 본 청 : 1실 · 7국 · 1감사실 · 1본부 · 2관 · 1협력실
- 외청사업소 : 3원 · 13사업소
- 기 타 : 의회사무처, 증평출장소, 5소방서



※ 직속기관 : 공무원교육원, 농촌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 定員

- 총 2,623명 : 본청 942명, 외청사업소 782명, 기타 899명

II. 道政方針

— 힘 있는 忠北 건설 —

- | | | | | |
|----|---|---|---|---|
| 1. | 民 | 本 | 道 | 政 |
| 2 | 均 | 衡 | 發 | 展 |
| 3. | 技 | 術 | 振 | 興 |
| 4. | 文 | 化 | 暢 | 達 |

1. 道政方針의 基調

-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어 도민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21세기 「힘있는 忠北 건설」을 목표로
- 도정의 기조를 「民本道政」「均衡發展」에 두고
 -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을 펼침으로써 도민의 창의와 역량을 충북 발전에 결집해 나가는 한편
 - 지역간·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는 균형적 성장발전을 도모
- 농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과학「技術振興」
- 도덕과 「文化暢達」 그리고 예술진흥에 역점

2. 道政方針 實踐方向

첫째 → 民本道政

1 道民力量을 結集하는 「열린 道政」 實踐

- 「21세기 위원회」 운영 등 도민참여에 의한 정책방향 설정
- 주민의 생생한 소리와 행정과정이 거침없이 교류되는 「공개 예고행정」의 실천
- 매주 1회 도민과의 대화로 민의경청 기회 확대
- 「현장·확인행정」으로 대형사고 방지, 기업애로 해소

2 모든 道民이 主人이 되는 和合道政 수행

- 어둡고 그늘진 소외계층이 밝게 살 수 있는 「햇볕정책」 실천
- 행정협의회활성화 등 광역행정체제구축 및 분쟁조정기능강화
- 자치발전의 동반자로서 도의회와 집행부와의 공조체제 구축

3 道民福利 最優先의 公職風土 造成

- 민을 우선하는 공복의식과 자치시대에 걸맞는 경영행정 정착
- 서비스 행정 수요에 대응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 추진
-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후생제도의 정착으로 공무원 사기 진작

둘째 → 均衡發展

1 道民福祉 向上으로 地域間·階層間 葛藤 解消

- 복지시설, 제도보강으로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향상
-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취업알선은행, 교육, 탁아시설 설치

2 地域經濟의 競爭力 強化

-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등 권역별로 특화 개발
- 공항을 중심으로 한 도로·철도 등 원활한 교통망 확충
- 도시적 생활과 농촌 생산기반이 조화된 살기좋은 농촌 건설

3 計劃的인 開發로 清淨環境 保全

- 성장관리, 성장촉진, 환경보전 지역으로 구분 관리
- 신선한 공기, 맑은 물을 만드는 「생명의 숲」운동 전개
- 물관리 체계 일원화로 깨끗한 「생명의 물」공급
- 각종 산업시설의 계획적인 입지와 환경시설의 확충

4 自治財政의 自立基盤 構築

- 세수증대, 세외수입 확충, 민자유치 등 자치재정력 강화
-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재정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
- 공기업 경영합리화, 제3섹타사업 등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

셋째 ⇒ 技術振興

1 科學·技術情報의 綜合管理體制 構築

- 기술관련 유사기구를 통합, 과학기술 정보지원 전담기구 설치
-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 등 과학기술진흥 기반 확충
- 컨소시엄운영 활성화로 산·학·연·관 공동기술 개발 추진

2 忠北人材養成의 教育環境造成

-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및 기타 과학산업단지와 연계, 21C 첨단과학연구소 및 대학 유치
- 농업·관광·첨단산업 등 권역별 특화 전문대학 유치
- 과학기술대학생 향토장학금 지원 등 과학기술 인재 집중 육성
- 대학연구소와 중소기업과의 기술개발 컨소시엄구성 운영 추진

3 道民의 科學技術力 振興

- 도민 전체의 과학화, 정보화, 전문화에 대한 마인드 확산
- 중소기업의 유사업종별, 계열별 합작 「산업기술교육센터」

설립 유도

- 신품종, 신제품 생산자의 집을 「명예연구소」로 지정 운영

넷째 ⇒ 文化暢達

1 忠北의 傳統을 잇는 文化藝術의 暢達

- 충북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정신문화」의 계승 발전
- 「삼국문화 역사촌」 조성 등 중원문화 유적과 유물을 정비 보존
- 전통예술문화 대중화, 전통공예품 기술 보전 등 향토문화예술 전승 보전

2 歷史保存을 위한 記錄 및 鄉土史 研究

- 제도, 지역개발, 산업변천사 등을 망라한 「충북의 역사」 편찬
- 지역문화의 조사, 탐방, 전시 등 향토사 연구의 활성화
- 자매결연 도시와의 폭넓은 지방사료 교류 추진

3 文化藝術과 연계한 觀光의 主力產業化

-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순환관광지 개발 등 관광시장의 국제화
- 도립공원 조성으로 관광산업의 성장 촉진 및 지방재정 확충
- 지역 문화·예술·체육행사의 독창성 제고로 관광 활성화
- 도내 전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 관광자원화

III. '95道政主要施策 推進狀況

힘 있는 忠北建設

力點施策

1. 地方化 時代에 걸맞는 民本道政 具現

2. 道民 和合과 住民 福利의 增進

3. 地域均衡發展의 促進

4. 地域經濟의 活性化

5. 競爭力を 높이는 科學技術振興

6. 活氣찬 福祉農村建設

7. 地域文化暢達과 觀光振興

地方化時代에 걸맞는 民本道政具現

- 도정의 근본을 민의에 두고 열린 도정 수행
- 도민의 신선한 뜻을 굴절없이 도정에 반영 추진

1 道民力量을 結集하는 「열린 道政」 실천

□ 도민참여에 의한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설정

- 충북 21세기 위원회를 설치, 도정 구심체로 활용
 - 조례제정 공포 : '95. 8월중
 - 지사실 접견, 현장방문, 전화대화 등 격의없는 대화 확대
 - 매주 목요일 「도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 : 2회 27명
- ※ 대화 결과 주민의 고충 신속처리 및 건의사항 도정에 반영

□ 민원의 신속·공정·친절한 처리로 신뢰도 제고

- 「후견인제」 운영 등 민원1회방문처리 확행 : 불가민원 6% 감소
- 행정오지를 대상으로 이동민원상담실 운영 : 291건 처리
- 우수민원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 가점, 민원대상제 등
- 상수도 수리 등 생활민원의 차질없는 처리 : 기동처리반 운영

2 地方自治 力量의 擴充

□ 책임·의무를 바탕으로 힘있는 자치도정 마련

-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자치단체 자율권 강화 : 권한위임
- 조정능력 제도화를 위한 광역행정, 분쟁조정기능 법제화
- 자치반상회 운영의 내실화 추진, 자치기능 확대

□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자립기반 구축

- 지방세수의 충실한 확충 : 지방세 29백억원 징수 목표
-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 등 생산적인 예산 운영
- 대규모 사업의 민자유치 추진
 - 투자설명회(4월), 유치심의 조례 제정(5월)
- 공공시설의 재배치 및 현대화 추진 : 5개 외청사업소

□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 대형사고 예방 및 수습체계 구축
 - 취약지(273개소) 특별관리, 구조체제 일원화(소방서) 등
-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교통사고 예방 : 883개소 정비 확충
- 수질저하 방지 등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

道民和合과 住民福利의 增進

- 「의식 · 행태」의 선진화로 믿고, 돋고사는 풍토조성
- 어둡고 그늘진 소외계층이 없는 건강한 사회 건설

1 모든 道民이 主人이 되는 和合道政 실천

□ 화합을 중시하는 도민심성의 啓發

- 질서 · 친절 · 청결 · 정직 · 봉사 등 5대 덕목의 생활화
 - 시군별 1년에 1가지 덕목씩 착실한 정착
- 서비스업 종사자의 선진국 현장체험 교육 실시
 - 택시기사 등 260명
- 충북인의 자랑스러운 공동체 의식 함양 시책 추진
 - 주민대학 등 운영

□ 봉사를 바탕으로한 공직자의 의식 전환

- 해외연수를 통한 비교견문 확대 : 236명
- 충북강좌 등 직장 보수교육 확대 실시로 서비스 의식 제고

□ 행정조직의 경쟁력 강화

- 비용개념에 의한 조직관리 등 조직의 탄력적 운영
- 행정사무 환경의 간소화 추진
 - 민원서류 표준화, 자동화 사무실 설치(2개과 시범) 등

2 더불어 살아가는 「햇볕 政策」 실천

□ 어려운 도민의 인간다운 삶 배려

- 저소득, 불우계층의 생활수준 향상 도모
 - 기본생계보장, 자활능력배양, 재활지원 등 556억원 지원
- 무의탁 노인·불우청소년 돋기 등 상조운동 확산
- 달동네 환경개선 추진 : 총 114억원 투자
 - 상하수도, 도로 등 주거환경기초시설 106건 개선

□ 도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소 등 보건의료시설의 확충, 의료수준 제고
- 의료보장 사업의 내실운영 : 도민의 72.5% 가입
 - 지역 11개조합, 직장 2개조합 → 926천명
- 가족보건 및 의·약사 관리로 모자건강과 의약품 품질 유지
- 방역소독 등 전염병 예방 생활화 추진 : 7~9월

□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 지속 확대

-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의식개혁 및 여성의 지위향상
- 여성의 능력이 발휘되는 취업·봉사활동 알선 추진
- 맞벌이 가정의 母子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 : 271개소

地域均衡發展의 促進

- 지역간, 계층간, 산업간의 균형성장 및 발전을 도모
- 21세기 가장 살기좋고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

1 競爭力있는 地域開發의 促進

□ 21C 한국의 첨단산업 지대로 위상 확보

- 충북선을 따라 동서를 잇는 내륙 첨단산업벨트 구축
 -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오창테크노밸리, 충주 테크노타운, 제천·음성·증평공단 조성중
- 시군별 지방공단 조성 및 무공해 첨단산업 유치
 - 기술산업 道로 이미지 부상 : 39개 공단조성 완료 (지방공단)
- 자생력있는 기업발굴, 첨단 수출기업으로 육성 : 7개업체 선정

□ 지역의 균형적 개발 - 3개 권역별로 특화

- 중부권 - 청주광역권 개발과 연계, 교통·정보·물류 중심지
- 북부권 - 첨단산업과 환경·휴양 중심지
- 남부권 - 교육·문화·예술 및 과학영농단지 중심지

□ 교통망 확충

- 청주 국제공항 연결도로 확장 및 신설 : '96착공 목표
- 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 : 일부구간 실시설계 완료
- 국도 12노선 확포장 : '95년도에 852억원 투입, 공사중

2 計劃的인 開發로 清淨環境 保全

□ 「생명의 숲」 운동 전개 - 계획 수립중

- 범도민 현수운동 전개 : 「일생 3그루 기념식수」 추진
- 소백·차령산맥 일대 청정관리로 자연경관 보존
- 「무궁화 길」「단풍·은행나무 길」등 가로수를 특색있게 조성
- 고로쇠나무 등 고부가가치 수종으로 단계적 개신

□ 먹는 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수질측정망(30개소) 운영으로 오염측정 및 청정 수질보전
- 약수터(옹달샘) 등 먹는 물 수질검사 강화 : 2,586개소

※ 먹는물관리법 시행('95. 5)에 따른 조직정비 등 준비 만전

□ 하수처리장·위생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 5개소 231천톤
- 매립장(5개소), 대형소각로(충주), 분뇨처리장(음성) 등 설치
- 오·폐수 불법방류 감시 철저 - 엄격한 제재조치 확행

□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사업 조기정착 도모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및 재활용 시설·장비 확보 추진
- 부녀회, 노인회 등 자생조직을 통한 자율수거 유도

地域經濟의 活性化

- 지방화 시대에 알맞는 지역경제발전 기반 조성
- 국제 경쟁력 제고로 활기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

1 中小企業의 重点 育成

□ 중소기업의 「자금 · 기술 · 시장 · 정보」 애로 해소

- 운전 · 구조조정자금 지원 : 총 501억원 (214업체 367억원지원)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5월, 9월)
 - 1차 파견 성과 : 계약 3,054천불, 상담 27,898천불
- 「충북 특산품전」 개최 (11월 예정) 지원
- 산업기술정보센터운영 (421건제공), 기업법령소식지발간 (9회)
- 기업애로 직소창구 개설 : 기관장실 등 26개소 운영

□ 산업평화의 확고한 정착 분위기 조성

- 노사간 대화, 체육행사, 해외연수 등 노사공존 의식의 정착
- 「산업근로대상」「이달의 근로왕」 선발 (14명)로 경쟁 유발
-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

종합복지회관 건립 (청주, 1천평) 등 추진

2 安定된 企業活動 支援

□ 기업인 참여 「민관합동규제완화위원회」 운영

- 위원 20명중 11명 민간인 위촉, 기업의 현장애로 중점 수렴
- 규제완화 대상과제 발굴 추진 : 75건

□ 지역물가의 안정기반 정착

- 물가감시반 상시 운영 및 중점관리로 물가자극 요소 차단
 - 개인서비스요금 지도 단속 및 홍보 : 행정조치 915업소
 -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 : 도, 시군 13개소
- 토지관리 효율화, 부동산투기 단속으로 가격안정세 지속 유지

□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

- 산업, 수송, 가정, 공공시설 등 분야별 절약 추진 : 년중
- 에너지 과소비 및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체 관리 : 898업체
- 매스컴, 반회보 등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지속 홍보

□ 산업디자인 기술개발 지원

- 상품 특성을 통한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
 - 12개 업체, 14개 상품 디자인 개발 지원
- 디자인의 고급화로 기업 이미지 쇄신
 - 산업디자인 전시회 개최 : 2월

競爭力を 높이는 科學技術振興

- 지방의 기술력 신장으로 지역경쟁력 확보
- 산업발전과 연계된 과학, 기술, 정보의 중점 개발

1 科學技術振興 基盤의 擴充

□ 과학, 기술, 정보의 종합관리체제 구축

- 과학기술 정보지원 전담기구 설치로 전문화 추진
 - 유사 관련부서 통합 일원화 추진중
- 과학기술 정보의 체계화 및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
 - 종합무역통신망 (KOTIS), 데이콤 등과 전산망 연결
- 권역별 특화대학 유치로 충북의 과학인재 양성
 - 옥천 공업전문대학 설치 추진 :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

□ 산·학·연·관 공동기술개발 추진

-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 운영 : 3개대학 35업체
 - 다품종, 소량화 시대에 대비한 향토기술 개발
- 행정과 기업, 학교간의 산·학 협동 강화
 - 기술정보 제공, 산업현장 견학 실습 등 공동 추진

2 道民의 科學 技術力 提高

□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

- 명인, 명장, 명품 발굴육성으로 기술의 특성화 추진
- 과학기술학과 관련 유학생에게 향토장학금 집중 지원
- 도민 전체의 과학화, 정보화, 전문화 인식 제고

□ 산업기술 연구의 활성화

- 창의력을 발휘한 도민이나 단체 적극 지원
 - 신품종, 신제품 생산자, 신기술 개발자 등
- ※ 「충북명예연구소 지정운영 조례」 제정 추진 : 8월
- 산업 분야별, 학부별 「과학기술경진대회」 개최
 - 대회 수상자, 발명왕의 명예증서 교부, 특허등록 등 지원

□ 「산업 분야별 기술교육센터」 설치 지원

- 중소기업의 유사업종별, 계열별 합작 「산업기술교육센터」 설립 유도
 - 저소득층, 유휴 여성인력의 기술교육 경비 지원
- 농촌 지도소를 농업기술교육센터로 개편 운영
- 도의 「산업디자인실」 확대 개편 : 검토중

活氣찬 福祉農村 建設

- 농어촌발전대책의 추진으로 농정개혁 이룩
- 농업의 전문화·규모화·과학화로 경쟁우위 확보

1 「企業으로서의 農業」 基盤 조성

□ 農業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정책의 중점 설정

- 기계화 영농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
 - 대구획 경지정리, 시설자동화, 용수확보 등 생산비 절감
- 품종개량, 유기농법, 가공 등 「품질경쟁력」 향상
 - 基幹작목 재배기술 개발로 수입작물 대응력 제고 병행
 - 벼, 콩 등 우량종자 적응 시험중
 - 특산전문단지 조성(13개소),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21개소) 등 추진
- 상표, 포장개선 및 신속한 유통정보제공으로 「시장경쟁력」 확보
 - 품질인증제(53건), 규격포장재(28품목) 개발등 상품의 세련화
 - 현지전시상담장 설치, 해외시장 집중공략 : LA, 뉴욕, 로테르담
 - 품목별 고유상표 개발(10종), 명품 이미지 제고

□ 「프로」 농민육성 -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등 5,850명

- 일류농민만이 살아 남는다는 투철한 인식 확산 : 영농교육 등
- 영농자금 지원, 해외연수, 위탁교육(290명) 등 경쟁능력 배양
- 농어민 후계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추진 : 83명

2 農業外 所得源 擴充 - 總所得 24% ⇒ 30%

□ 농촌지역에 2·3차 산업 배치로 고용기회 증대

- 민속공예, 농가공산품 등 농어촌특산단지 조성 : 36개 단지
- '95 신규 8개단지 지정 육성 중 : 단지당 2~5억원 지원
※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건립(율량동) : 10억원

□ 농촌휴양단지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확대

- 관광농원 개발 : 30개지구 조성 20개지구 운영
- 민박마을 지정 : 14개지구 190호
- 소규모 농촌관광휴양지 조성 : 5개지구

3 住居環境의 劃期的 개선

□ 문화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투자 확대 - 945억원

- 도시적 편익과 전원이 조화된 주택개량 : 1,580동
- 주택 내부구조 변경 등 문화시설 확대 : 1,900동
- 마을앞 실개천 정비, 광장포장 등 환경개선 : 1,149건

□ 농어민 연금제도 ('95. 7. 1 실시) 추진 및 홍보 강화

- 안정된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감 제고

地域文化 暢達과 觀光振興

- 고유의 향토문화유산 발굴로 세계적 관광지 개발
- 중원문화의 위상정립으로 문화예술의 특성화 추진

1 文化藝術活動 基盤 구축

□ 격조 높은 향토문화 유산의 전승 보전

- 문화재·유적지 보수정비와 우수민속예술작품을 보전 추진
 - 가칭 「인쇄교과서 박물관」 건립 계획 추진 : 1,200평
- 국악, 택견, 민속주등 조상의 얼이 담긴 독창적인 문화유산 전승
 - 가장 한국적·충북적 요소를 최대한 발양

□ 충북 고유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지원

- 소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공간의 균형배치와 시설운영 활성화
 - 청주예술의전당 개관 : '95. 4
- 蘭溪·于勒 등 지역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전국행사 개최
- 고인쇄박물관과 연계한 국제규모의 인쇄·출판축제 개최(5월)
- 도내 농촌폐가 등을 활용한 예술인촌 조성 : 검토중

□ 건강을 향상시키는 체육문화의 확산

- 도서관, 박물관, 공원, 체육시설 등 여가문화 및 시설 확충
- 농어민문화센타, 체육회관 건립 등 체육문화 시설 확충

2 鄉土文化와 연계한 觀光基盤 확충

□ 민자유치 등 과감한 투자로 다양한 시설의 고급 관광지 조성

- 월악산 : 수안보 온천지구 보강, 월악수영장 건립 등
- 소백산 : 단양권 개발 → 콘도, 수변가로, 야경가꾸기 등
- 속리산 : 레저타운 · 신정지구 개발, 정이풀송 주변정비 등
- 충주호 : 청풍문화재단지 확대, 번지점프장, 인공분수대 등
- 양산팔경 : 천태산 · 양산팔경 개발 → 산악탐방형 휴양시설 등

□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문화관광상품 개발

- 지역정서가 담긴 관광농장, 민박마을, 자연휴양림 조성
- 도내일원 순환수렵장 운영 ('95. 11-'96. 2) : 30억원 수입 예상
- 도예촌 · 공예문화캠프, 공예품 경진대회 등 고유관광상품 개발

□ 「친절 · 청결 · 서비스」 개선으로 세계 일류관광지 이미지 조성

- 관광지별 볼거리, 먹거리, 이야기거리 등 적극개발 보급
- 관광요식업소의 서비스교육 및 외국어 구사능력 제고 (5천명)
- 숙박시설 확충, 안내판 정비 등 관광객 수용여건 지속 추진

□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

- 「아름다운 충북의 관광명소」 해외 홍보 : 13지역 25개소
- 관광명함, 책자, 사진, 비디오 등을 제작 입체적 홍보
- 관광지별 순례코스화 등 다양한 홍보 시책 전개